

아가서 – 사랑과 지혜의 책

1. 제목

아가(雅歌)라고 번역된 말은 ‘노래 중의 노래’라는 말이다. 이것은 많은 노래 가운데서 한 노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 중에서는 ‘솔로몬의 노래’(the Song of Solomon)이라고 제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제목 뒤에 나오는 ‘아쉐르 리술로모’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에 대한 다음 항목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솔로몬의’는 저자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아가(雅歌)는 ‘우아한 노래’ 혹은 ‘고상한 노래’라는 의미인데, 얼른 보면 아가서에는 매우 직설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좋은 제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남녀의 사랑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아가라는 번역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자를 음악의 ‘아악’(雅樂)과 관련시키면 민속 음악에 대비되는 ‘궁정 음악’이라는 뜻이다. 곧 일부 영어 성경의 ‘솔로몬의 노래’처럼 ‘왕의 노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저자와 연대

“솔로몬의 노래”라고 1:1에 밝히고 있고 솔로몬이 일곱 번 언급되며(1:1, 5, 3:7, 9, 11; 8:11-12) 왕이라는 단어도 세 번 나온다(1:4, 12; 7:5). 솔로몬이 일천 다섯 개의 노래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서(왕상 4:29-34) 아가서도 그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¹⁾

그러나 위의 내용을 근거로 솔로몬의 저작권을 확정할 수는 없다. 첫째, 문법적으로 “솔로몬의 노래”라는 말은 “솔로몬에게 드린 노래” 혹은 “솔로몬에 대한 노래”로도 번역될 수 있다.²⁾ 둘째, 아가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왕은 신랑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과 대조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특

1)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한 후에 아가서를 썼다는 주장은 중세 유대인 신학자 라쉬(Rashi) 이후 보수적이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더글라스 손 오도넬, 『아가: 진밀함으로의 초대』 (부흥과개혁사, 2015), 26.

2) 히브리어 본문에는 ‘솔로몬’과 ‘노래’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있다. 직역하면, “노래 중의 노래, 솔로몬에 대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전치사 ‘르’를 ‘을 위한’으로 이해하여서 ‘다윗을 위한’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작설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히 8:11-12).

아가서는 한 목자와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솔로몬을 시의 주인공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목자와 술람미 여인이 직접 이 시를 지었다고 확정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랑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묘사한 책이 아니고 ‘노래’이다. 사랑의 여러 면을 묘사한 노래로 읽어야 한다.

1:1의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은 이 책을 솔로몬의 지혜의 전통에서 읽어야 함을 함축한다. 이 책은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참다운 사랑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지혜의 책’이다. 목자와 시골 처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저작 시기는 오므리 왕조(885-874년) 이전의 수도였던 디르사가 예루살렘과 함께 언급되는 것(6:4), 활발한 국제 무역과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묘사 등을 보면 솔로몬 시대나 그 직후, 즉 분열 왕국 초기로 볼 수 있다.³⁾ 그러나 지명이나 문화적 배경이 저작 시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후대에도 이전 세기의 지명이나 문화를 소재로 삼아서 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⁴⁾

3. 아가서 해석의 역사

아가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지나간 시대의 해석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 책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⁵⁾

1) 풍유적 해석

아가서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은 풍유적 해석이다. 풍유는 한 세계의 이야기를 다른 세계의 표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해석 방식에 따르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표현한 책이다. 예를 들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

3) 언어학적인 근거로 후대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무역품 등을 고려하면 솔로몬 직후가 가장 개연성이 있다. D.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348-52.

4)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3-5.

5) 아가서에 대한 해석의 역사와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아가서의 ‘정경성’(正經性)에 대한 논의이다. 그렇지만 정경성에 대한 논의를 다 따라가면서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잘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손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에 근거하여서 정경성을 부정하지만 브뤼헌(Jacob van Bruggen)은 오히려 그 표현이 정경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손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누가 성경을 만들었는가』, 163-170쪽.

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1:2)는 구절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위대한 서기관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돌판의 율법을 주셨도다. 미쉬나와 탈무드의 여섯 부분을 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흔 이방 나라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1:13의 “내 품의 몰약 향낭”이라는 말을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Targum)에서는 이것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아가서의 구조와 연결시켰다. 예를 들면, 출애굽과 성막 건설과 가나안 입성(1:1-3:6),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제사장들의 헌신(3:7-5:1), 이스라엘의 범죄와 포로 생활(5:2-6:1), 성전 재건(6:2-7:11), 포로 후기에서 메시아 출현 등으로 구분하였다(7:12-8:14).⁶⁾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정해진 부분의 성경을 읽었는데 율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다. 아가서를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노래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를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가서 전체를 이스라엘의 사랑과 배반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른다.

고대 교회에서도 풍유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1:2), 검은 피부는 죄이고(1:5), 두 입술은 율법과 복음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5:1). 어떤 사람은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몰약 주머니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참조. 1:13; 4:5). 고대 교회의 풍유적 해석은 유대인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풍유적 해석은 중세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어 수도승들이 영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재료가 되었다. 수도승들은 자기들의 독신 생활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는 아가서의 처음 두 장을 근거로 86편의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⁷⁾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첫째, 풍유적 해석에서는 해석자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데에 큰 약점이 있다. 해석자의 상상을 집어넣는 풍유적 해석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12-16.

7)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나는 들의 꽃 골짜기의 백합』, 장미숙 역 (은성, 1996).

둘째, 풍유적 해석은 그 기원과 철학적 근거가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풍유적 해석은 그리스 신화나 영웅담에서 신들의 비도덕적 행위나 잔인한 행위를 부드럽게 만들고 윤리적이거나 철학적 교훈을 이끌어 내려고 기원전 6세기부터 사용된 해석법이다. 또한 풍유적 해석의 철학적 근거는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의 이원론이다. 영혼과 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아가서의 사랑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한 것이다.⁸⁾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가득한데,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적인 관계로 해석하면 다른 문제를 낳는다. 남자와 여자의 입맞춤이나 육체적 접촉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적용하면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혼인의 관계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행위로 표현한 곳은 없다.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경건을 가장한 풍유적 해석이 사실은 가장 신성모독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⁹⁾

넷째, 풍유적 해석법을 적용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 대하여서도 합당한 해석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여인들,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들, 여인의 오라비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대한 풍유적인 해석은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풍유적으로 이해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풍유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2) 역사적 문법적 해석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풍유적인 해석을 하였지만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하였다. 안디옥 학파에 속하는 Theodorus von Mopsuostia는 아가서를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로 이해하였다. 그렇지만 553년 제2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Theodorus는 아가서의 정경성을 인정하였지만 지나치게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만 해석하였다가 정죄를 받은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던 Sebastian Castellio는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의

8) D.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355-57.

9) H. Ohmann, *Song of Songs*,

노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Theodorus와 달리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다른 이유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루터와 칼빈은 풍유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았고, 아가서가 인간의 사랑을 다루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다.

3) 근대의 해석들 - 연극, 제의, 혼인과 관련한 해석

첫째, 아가서를 2인 혹은 3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연극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2인 연극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진정한 사랑의 노래로 해석하고, 3인 연극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목동이 얻었다고 해석한다.

연극적 해석은 그리스의 연극을 아가서에 적용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아가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대 장면이나 대사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연극으로 상연하기가 매우 어렵다.¹⁰⁾ 또한 아가서는 상징성이 강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구성하기가 어렵고, 전반적인 플롯을 찾기 어렵다.¹¹⁾

둘째, 아가서를 혼인식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혼인식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잔치를 열고서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는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풍습과 아가서를 연결한다. 그들은 아가서도 혼인식 잔치 중에 부르는 노래의 일종이었다고 한다.

물론 아가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식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는다. 또한 고대근동 지역이나 지금 시리아에서 시행되는 풍습이 이스라엘에서도 시행되고 아가서에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

셋째, 아가서를 고대근동의 제의와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다산(多産)의 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의적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풍요의 신에 대한 제의 도중에 매우 육감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한 문헌이 19세기 이후에 발굴되면서 아가서도 그러한 종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왕과 풍요의 신의 ‘거룩한 혼인’(sacred marriage)을 노래하는 시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였다.

10) G. Carr, *Song of Solomon*, 34.

11) B. Webb, *Five Festal Garments*, 18-19.

그렇지만 풍요의 신상(神像)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가서의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고, 풍요로운 추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아가서가 풍요의 신에 대한 찬송의 일종이라고 하면, 이 책이 정경에 포함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제의적 해석은 19세기에 발굴된 고대근동 문헌과의 유사성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¹²⁾

4) 사랑의 노래

아가서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제목에 충실하는 것이다.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 곧 최고의 노래이다. 노래의 주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다. 이것은 아가서를 지혜서의 맥락에서 읽도록 인도한다.

4. 지혜서와 정경의 맥락에서 아가서 읽기

1) 지혜서의 맥락에서 읽기 –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혜의 전통에서 읽는 ‘솔로몬의 아가’는 사랑에 대한 책이다.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아가서에서는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사랑이 준비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나온다(2:7; 3:5; 8:4). 이 표현은 남자가 여인을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다(2:6; 8:3) 하는 말 다음에 나온다. 육체적인 긴밀함을 표현하는 말 다음에 그 사랑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멈추도록 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후렴구와 함께 시의 내용이 더 발전한다.

8:4에서는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 하는 말이 8:5의 ‘자극하라’는 말이 이어진다. 그것은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사랑을 일깨우라고 한다(8:5).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인이 남자를 일깨우는 것은 그 나무 밑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낳은 것과 같은 일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혼인으로 향하는 것이고 혼인은 자녀를 낳는 일로 이어진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일깨운 사랑은 여호와와 불과 같다. 그러한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사랑의 기원이 여호와임을 암시한다. 아가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나온다. 이것은 사랑과 여호와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한다.¹³⁾ 에덴에서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여호와와 불과 비유된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

12) D.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361-63.

13) B. Webb, *Five Festal Garments*, 24.

과 같이 강렬한 그 사랑은 여호와에게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솔로몬의 많은 보화로도 이 선물을 얻을 수 없으나 목동과 같은 필부(匹夫)는 자기의 포도원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목동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누리는 만족은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관리하는 포도원과 대비가 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지혜자는 아가서에 묘사된 아름다운 사랑을 바로 자신의 품에 있는 아내에게서 찾으려 인도한다. 평범함 목동이지만 여호와에게서 나온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성경의 맥락에서 읽기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나뉘는 것은 성(性)에 대한 나름의 관점 때문이다. 특히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막았다. 물론 아가서에 영적인 뜻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뜻은 아가서를 잘 이해하는 터 위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가서를 잘 읽는 첫째 단추는 정경(正經)의 맥락에서 읽는 것이다. 성경의 일부는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읽어야 한다.

첫째, 솔로몬의 아가서는 지혜의 전통에서 읽어야 한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다.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지혜자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잠언 5:15-20; 6:24-29; 7:6-23 등에서 아가서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잠언 5:15-19는 특히 아가서 4:12-15, 5:1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우물’ ‘샘’ ‘물’ ‘마신다’는 말은 부부의 내밀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암사슴과 암노루도 아가서에 여러 번 나오는 동물이다.¹⁴⁾ 잠언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은 아가서를 사랑에 대한 지혜자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또한 잠언에서 지혜가 여인으로 묘사된 것처럼 아가서에서도 사랑이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된다. 이러한 여성형 표현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숙고하게 만든다. 아가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즐겁고 신비한 성격에 대한 지혜의 반성적 성찰이다.”¹⁵⁾

둘째, 아가서는 율법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아가서에는 아직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과 달리 성적으로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돌로 침을 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현대의 시각을 가지고

14) Rosalind S. Clarke, "Canonical Interpretations of the Song of Songs", *Tyndale Bulletin* 65 (2014), 305-308.

15)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T as Scripture*, 575.

아가서를 읽으면 그릇 읽는 것이 될 것이다. 혼전 관계나 혼외 관계를 금하는 율법의 맥락에서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셋째, 에덴동산의 배경에서 아가서를 이해해야 한다. 아가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산(4:12, 15-16; 5:16, 2; 8:13 등), 식물(2:1-5, 13; 4:3; 5:15; 7:8, 13 등), 강(4:15), 동물(4:1-2, 5 등)의 네 가지 모티프는 아가서를 에덴동산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아가서에 나오는 친밀한 육체적 묘사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 2:25)는 말씀을 반영하고, 아가서의 동산의 이미지도 에덴동산을 연상시킨다.¹⁶⁾

넷째, 타락과 구원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아가서에 에덴동산의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 여인의 오라비도 그렇고(1:6; 8:8-9),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도 그렇고(2:15), 여인을 폭행한 순찰자들도 그렇다(5:7). 여인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여인들도 우호적인 세력은 아니고, 따라서 여인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변명을 하였다(1:6; 5:9-16). 아가서는 사랑의 현실성도 잘 가르친다. 낙원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타락한 현실에서 사랑을 바르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아가서에 나오는 에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성을 가르쳐 준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에덴의 이미지로써 가르쳐 준다.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선한 창조로서의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남녀의 온전한 결합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여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인간의 성도 파괴적 유혹에 의하여서 쉽게 무너지는 도구가 되었다. 사랑과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¹⁷⁾

다섯째, 타락과 구원의 맥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서를 읽도록 한다. 에덴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거룩한 것이었다(창 2:24; 엡 5:31-32). 우리는 풍유적인 해석의 약점을 알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제하고서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으로만 이해하지도 않는다.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훨씬 깊고 풍부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혜서를 예언서와 함께 읽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

16) Meredith G. Kline, "Bible Book of the Month - The Song of Songs", *Christianity Today* 3 (April 27, 1959), 39.

17) 존 스톡, 『구약 신학: 본문과 해석』, 589-594쪽.

가서를 읽기 때문에 아가서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서에 나오는 혼인에 대한 교훈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언약’이라는 말이 아가서에는 없지만 혼인을 언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명백하고, 아가서의 주제인 8:6의 ‘사랑’(אהבה)은 예언서에서 언약의 용어로 함께 쓰였다. 많은 불로도 끝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사 54:8-9). “내가 무궁한 사랑(אהבה)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חסד)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하셨다(렘 31:3).¹⁸⁾ 예언서의 이러한 구절은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지혜서도 언약의 맥락에서 정경적으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性)이 심히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멀리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정경적 맥락에서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타락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아름다운 시는 왜곡된 현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를 시로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노래가 제시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3) 오늘의 현실에서 아가서 읽기

아가서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솔로몬도 참된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현대인에게도 함의하는 것이 있다. 왕정이 없는 현대에서 사람들은 이성의 모델을 영화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에게서 찾는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것이 없다. 현대의 이상적인 인물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없다. 외모가 아니라 맑은 눈과 군대와 같은 엄위로움을 가진 여인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가르쳐 준다.

사랑과 성(性)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첫째는 성을 일종의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을 성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성을 이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인들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성적인 자극이 없는 삶은 최소한 파분한 것이며 아마 어쩌면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한다. 따라서 그 파분함을 피하려고 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에서도 영적인 죄가 곧 성적인 죄로 표현되는 것을 가르친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들었고(롬 1:24-27), 성신의 열매와 대조가 되는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18) Iain D. Campbell, “The Song of David’s Son: Interpreting the Song of Solomon in the Light of the Davidic Covenant,” *WTJ* 62 (2000), 29-30.

으로 시작한다(갈 5:19).

둘째는 이에 대한 반발로 성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고 금기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자체를 저열하거나 악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바울 사도는 이것도 사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딤후 4:1-3). 혼인을 거부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침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히 13:4).

사랑과 성이 왜곡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주셨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몇 편으로 구성되었고, 그 시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랑의 힘과 아름다움과 배타성을 묘사하고, 이별과 친밀함, 고뇌와 환희, 긴장과 만족의 다양한 경우를 제시한다. 아가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온다.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다.

4. 문예적 특징과 구조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노래'이고 '사랑의 시'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표현이나 마음의 생각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사랑을 묘사하는 감각적인 표현이 많다. 꽃을 보는 것, 새와 동물의 소리를 듣는 것, 향기를 맡는 것, 열매를 맛보는 것, 입맞춤 등과 같이 오감(五感)을 나타내는 말이 많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러한 시어를 사실에 대한 묘사로 보면 시를 '산문'으로 읽는 것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아직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아가서를 사랑의 노래로 이해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일관된 구조를 갖춘 일련의 노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으로 이해하여 아가서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 모음집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¹⁹⁾ 이들은 아가서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성적인 표현을 지적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 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이지만, 그것을 노래 모음집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작은 부

19) 아가서가 구조를 갖춘 노래로 보는 학자로는 D. A. Garrett이고, 노래 모음집으로 보는 학자는 Fox, Murphy, Longman IV 등이다. Fox는 31개 노래 모음집으로, Longman은 23개의 노래 모음집으로 본다.

분으로 나누면 읽는 것이 많다.²⁰⁾ “노래 중의 노래”라는 제목은 이 책이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주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함의한다.²¹⁾

지혜의 전통에서 읽는 솔로몬의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인생을 성찰하도록 하는 책이고, 그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가서에는 헤어짐과 만남, 고독과 만족 등 사랑하는 이들의 여러 면이 묘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아가서의 구분과 구조에 대한 논의는 아가서의 해석사만큼 복잡하다.²²⁾ Exum의 최근 연구는 아가서를 여섯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이전의 논의를 잘 정리하고 무리가 없게 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구분을 따르면서 본문을 살펴겠다.²³⁾

여섯 구분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또 다른 논의인데, 최근에는 아가서의 대차대구적 성격을 지적한 학자들이 여럿이다.²⁴⁾ 어떻게 대차대구적으로 분석할 것인지도 다양하게 논의되는데²⁵⁾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구분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첫째 노래: 사랑의 고백 (1:2-2:7)	A
둘째 노래: 신랑의 초청과 신부의 분리와 만남 (2:8-3:5) (1) 신랑의 초청 (2:8-17) (2) 신부의 분리와 만남 (3:1-5)	B C
셋째 노래: 혼인식 노래 (3:6-5:1)	D
넷째 노래: 혼인 후의 분리와 만남 (5:2-6:3) (1) 분리 (5:2-8) (2) 만남 (5:9-6:3)	C' B'
다섯째 노래: 깊어진 사랑 (6:4-8:4)	B'
여섯째 노래: 여호와와 불과 같은 사랑 (8:5-14)	A'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혼인식 노래(3:6-5:1. D) 전후에 신부의 방황과 분리가 나온다는 점이고(3:1-5; 5:2-8. C, C'), 그 바깥 원에 두 사람이 찾고 만나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온다(2:8-17; 5:9-6:3, 6:4-8:4. B, B'). 여호와와 불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8:5-14. A')

20) B. Webb, *Five Festal Garments*, 20-21.

21) “시편”과 “잠언”은 복수형이 사용되었으나 ‘노래들 중의 노래’는 단수형이 사용되었다. Iain M. Duguid, *The Song of Songs* (IVP, 2015), 53.

22) 아가서의 구조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현창학, “아가서 해석”, 『신학정론』 26:2 (2008), 100-105를 참조하십시오.

23) J. Exum, *Song of Songs* (WJK, 2005), 38. J. Exum은 2005년 저술은 이전 연구를 잘 정리하였고, Iain M. Duguid 등이 이 구분을 따른다.

24) Exum, Dorsey, Garrett, Carr, 앤드류 황과 사무엘 고 등을 들 수 있다.

25) Garrett은 19개 항목으로, 앤드류 황과 사무엘 고는 11개 항목으로, Dorsey는 7개 항목으로 나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3:6-5:1의 혼인식 장면을 중앙에 둔다.

에서는 오라비와 그 여인의 포도원과 솔로몬에 대한 처음 부분(1:2-6)을 다시 언급하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대차구조적으로 읽으면 혼인을 중심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혼인 전의 관계만이 아니라 혼인 이후의 부부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차대구적으로 읽으면서 혼인을 중심에 두고 사랑을 살피지만, 동시에 이 노래 안에 발전이 있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한다. 책의 처음은 입맞춤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동산에서 노루처럼 달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아가서에 참된 사랑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완성을 기다리는 요소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가서 주해

<서론>

개역	사역
1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1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雅歌)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노래들의 노래’(쉬르 하쉬림)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하면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듯이(신 10:17; 딤후 6:15), 노래들의 노래는 ‘최상의 노래’라는 뜻이다.

아가서의 저자는 이 책을 아름다운 노래로 읽으라고 권한다. ‘미즈모르’는 시편과 같은 노래를 가리키지만 ‘쉬르’는 일반적인 노래를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 면에서 가르치는 것을 노래로서 부르고 배우도록 제시한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이고, 그들 사이에 합창이 있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연결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한다. 타락한 세상에서 성(性)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금욕주의로 치닫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참다운 사랑을 노래한다. 에덴동산의 아름다움을 전제로 하고 노래하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생각하게 이끈다.

이 책의 이름은 ‘솔로몬의 아가’이다. 솔로몬의 노래라는 말인데, 솔로몬이 삼천 가지 잠언과 일천 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다는 말을 연상시킨다(왕상 4:32). 그러나 ‘솔로몬의 노래’라는 말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에 대한 노래’로 볼 수도 있다. 아가서에서는 세 부분에 솔로몬이 나온다(1:5; 3:6-11; 8:11-12). “솔로몬의 휘장”(1:5)은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뒤의 두 부분에는 솔로몬을 조롱하고 비판한다. 솔로몬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기보다는 ‘솔로몬에 대한 노래’라고 보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흐름과 잘 맞는다.